

광복에서 U대회까지 빛고을 70년 이야기



‘피아노와 이빨’ 윤효간·대안학교 청년
대한민국 도시 생활상·사건 포스터 제작

14일까지 금남 지하사가 ‘더 숲’ 전시회
세계청년축제 홈페이지도 영상 감상 가능

‘광복 70주년, 광주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난 4월 개통한 KTX호남선은 광주에서 서울 간 소요시간을 1시간38분으로 단축시키면서 두 지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묶었다. 약 50년 전인 지난 1966년에도 광주에서 서울 간 철도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서울 간 초특급기동차가 개통되면서 기존 7시간30분 걸리던 소요시간이 6시간으로 무려 1시간30분이나 단축된 것이다.

1978년에는 광주 등 전국 초등(국민)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책가방에 끈을 달아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손에 들고다니는 무거운 책가방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정상발육을 저해, 척추만곡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오는 14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사가 있는 청년센터 ‘더 숲’에서 열리는 ‘70개의 광주 이야기’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이 다.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에 맞춰 열리고 있는 2015세계청년축제 행사 중 하나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70개의 포스터로 상상해보는 ‘대한민국 도시전-광주 70년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공연 ‘피아노와 이빨’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윤효간씨와 ‘윤효간대학’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희 출신 정예림(여·21)씨 등 대안학교 출신 청년들이 광주의 시간을 더듬어 만든 포스터들이 전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도시전’은 ‘피아노와 이빨’이 만든 찾아가는 전시회 ‘상상해보시지요’의 특별전시 테마 중 하나로, 광주U대회를 기념해 빛고을 광주가 그 첫 번째 도시로 선정됐다.

광복이 된 1945년을 시작으로 광주U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해까지 광주의 생활상과 사건을 중심으로 제작한 도시연보 형식의 포스터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다.

1965년 광주에서는 희대의 은행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그해 12월30일 새벽, 당시 광주시 총장로에 있는 한국은행 광주지점에 한 무리의 괴한들이 침입해 우리 돈 3300만 원과 미화 3만 달러 등 모두 6700만 원 상당의 돈을 리어카에 싣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짓말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쌀 한가마니가 1500원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은행 청소원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밝혀지면서 33시간 만에 종결됐다.

1976년 광주 사직공원에서는 새끼 호랑이

가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고, 엄마 호랑이 호순 양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동물원 측은 닭고기와 토끼고기를 합쳐 하루 4kg씩 주던 식사를 분만한 날부터 쇠고기 4kg으로 바꿔 특별제공했다.

1953년 광주극장에서는 16살의 군인 합동결혼식이 열렸고, 1993년 광주에서는 영호남 교류를 위해 광주 남성과 대구 여성의 처녀총각 맞선보기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은 1980 포스터에 촛불로 그려졌고, 지난해 세월호 사건은 노란 리본으로 표현됐다. 1982년 해태 타이거즈 창단과 1989년 해태 타이거즈의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 2013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완공 등도 포스터에 담겨 있다.

연도별 1개의 이슈를 선정해 제작한 포스터들을 찬찬히 훑어보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간략하게 표현된 문장, 표어, 오래된 이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시의 이슈들을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형님은 짧은 머리, 언니는 긴치마, 히피족 물리거라! 엄마, 아빠 사치 속에 명드는 우리 가정을!”이라는 표어와 함께 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어른들의 사치풍조를 바로잡자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도 있었다.

윤효간씨와 윤효간대학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한해의 이슈나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 신문의 1년치 기사를 전부 찾아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자료를 찾기 힘든 경우도 허다했다. 과거 자료에서 2~3줄의 기사를 찾아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피아노와 이빨’ 총괄 매니저인 김유미 실장은 “어떤 주제는 역사적인 순간도 있고, 굵직한 사건들도 있지만 소박한 소재들과 생활사 중심으로 무겁지 않은 주제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전공자인 학생들이 디자인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내고, 오랜 시간 회의와 수정작업을 거쳐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열린 예정인 공연과 전시에서 광주를 알리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며 “광주에서 U대회 후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서 선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세계청년축제 홈페이지(http://2015.wyf.com/?page_id=270)에 접속하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함께 포스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공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오는 10월15일부터 11월13일까지 열리는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포스터 등 EIP(Event Identity Program)가 공개됐다.

포스터는 전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이자 현재 파주타이포그래픽 인스티튜트 PATT 학교를 운영 중인 안상수 대표가 디자인 했다.

안 대표는 “포스터는 행사 주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신명(晨明)은 새벽녘, 동이 틀 무렵과, ‘신명이 나다’할 때 쓰는, 흥겨운 신과 멋이라는 뜻을 같이 품고 있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동이 틀 무렵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한 빛과 흥겨움이 느껴지도록 강렬한 빛깔을 골랐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

전남대 ‘BK21플러스 사업단’ 13일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여기반 사업단’(단장·신해진 국어국문과 교수)이 제4회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를 오는 13일(오후 2시) 인문대 1호관 학술회의실(113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이집트 한국문화원 박재양 원장을 초청, ‘한류 현상이 이집트 내에 한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한국문화원 역할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류 현상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또한 이집트 현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박재양 원장은 알아츠르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4년부터 초대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초대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의 날개로 한국을 신고’, ‘중동 언어의 이해’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